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 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. 11. 25-26 부산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11.21.(목)	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50)		담 당 자	김 경 호 사무관 (02-2100-2937)	
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60)			노 소 영 사무관 (02-2100-2662)	

## 제 목 : 사모펀드 및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선의 취지 및 기대효과

### 1. DLF 대책상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취지

- ☐ 11월 14일 발표한 DLF 대책은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선내용을 포함
-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“일반투자자”의 최소투자금액을 상향하고, 설명의무·숙려제도 등 투자자 보호절차를 강화

#### [DLF 대책상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관련 주요 내용]

##### ❶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

- \* 최소 1억원 이상 투자 → **3억원** 이상 투자

##### ❷ 녹취·숙려제도 적용범위 확대

- \* (현행) 파생결합증권: 고령(70세 이상)·부적합 투자자 →  
(개선) 모든 상품: 고령(65세 이상)·부적합투자자  
고난도투자상품: 모든 일반투자자

##### ❸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

- \* 설명의무 이행방식 보강, 투자자성향 분류 관리·감독 강화, 불완전 판매 유도행위(투자자 대신 기재 행위 등) 엄정 제재

⇒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“일반투자자”에게 이해가 어렵거나 손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이 사모펀드 형태로 광범위하게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

## 2.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개편\*의 취지

\*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(「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합니다.」, '19.11.20일) 참고

□ 우리 경제의 **활력 제고**를 위해서는 **혁신기업의 성장잠재력**을 보고 필요한 자금을 **과감히 공급**할 수 있는 **모험자본의 역할**이 중요

○ 모험자본의 공급은 투자위험을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**전문투자자**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

□ 그간 국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는 외국에 비해 요건이 엄격하여 동 제도가 **효과적으로 활용**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

\* 개인전문투자자 수 비교 : (미국) 약 1,010만가구('13년말) / (한국) 1,943명('18년말)

○ 전문투자자 제도가 **활성화**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상품개발과 판매과정에서 시장 스스로의 **규율이 未작동**

\* 전문투자자群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아,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투자상품이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, 신탁 등의 형태로 판매되어 온 경향

⇒ 전문투자자제도를 **합리화\***하여,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 개발(금융회사)과 적극적인 투자(전문투자자)가 **상호작용**하여 **선순환**을 이루는 **투자문화 조성**을 제도적으로 뒷받침

\* 미국(소득액 또는 자산 요건) 및 유럽(투자계좌잔고 요건)은 단일 기준을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

## 3. 기대효과 (종합)

□ DLF 대책과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은 투자자 **보호장치 강화**와 투자자 **책임원칙 구현**을 **균형있게 고려**하여 추진

○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에 대한 **보호를 강화**(DLF 대책)하고,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에 대한 **투자기회를 확대**(전문투자자 요건 합리화)하여 **상호 보완적으로 작용**할 것으로 기대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